2022 박물관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출토유물로 되살린

강원지역 사찰의 역사

2022. 10. 7 - 12. 31

주 관

월정사성보박물관

후 원

강원도·평창군

오대산 월정사에서 출토된 유물

월정사는 643년(선덕여왕 12년) 자장율사가 창건하였습니다. 이후 신효 거사와 범일국사의 제자 신의 스님, 유연 스님 등에 의해 점차로 사찰의 본격(本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예술적, 신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월정사 팔각구층석탑를 통해 불교의 번성과 발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 충렬왕 33년(1307년) 화재로 전소된 월정사가 이일 스님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이후 조선 왕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 번성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석탑 주변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 조선 시대 역사를 추정할 수 있는 건물지와 다양한 출토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통11년(正統十一年)'명 암막새에는 양녕, 효령대군이 1446년 월정사 중건에 참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 조선 왕실과 월정사의 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통11년(正統十一年)'명 암막새 (1446년)

正統 十一年 丙宍 四月日 月精寺...
大功□□ 讓寧大君, 孝寧大君, 施主 尙淳, 鄭氏, 朴氏, 金灌

- '정통11년(正統十一年)'명 암막새 명문 내용

청자 참외모양 병
(12세기)

소조불좌상
(10세기 말 ~ 11세기)

숭녕중보
(1102-1106년)

영감사(오대산사고)에서 출토된 유물

영감사는 645년 자장율사가 월정사와 함께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606년 이곳에 오대산 사고가 설치되면서 중창하여 사고를 직접 관리하는 사찰로 운영되었습니다.

오대산사고는 임진왜란 이후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위해 1606년 설치되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험준한 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관리 수호하기 위해 월정사를 수호사찰로 정하고 수호사찰의 주지를 실록수호총섭에 임명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때 오대산 사고와 영감사는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1961년 뇌묵스님이 절을 다시 세운 후 사고사(史庫寺)라 하였다가 본래 이름인 영감사로 바꾸었으며, 1990년 오대산사고가 복원되었습니다. 옛 절터에는 주춧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영감사 출토 기와편
(조선 후기)

다양한 명문이 적힌 도자기
(조선 후기)

조약돌로 만든 장기알

강릉 보현사에서 출토된 유물

보현사는 650년(진덕여왕 4년)에 자장율사(慈藏律師)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또한 889년(진선여왕3년) 사굴산문의 개산조(開山祖)인 범일국사(梵日國師)의 법맥을 이은 낭원대사(朗圓大師)에 의해 지장선원(地藏禪院)이란 이름으로 중창되면서 번창한 사찰입니다.

2005년 발굴조사 결과, 10세기경에 제작된 해무리굽 청자 저부편과 중국 경덕진요와 월주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백자, 풍설(風舌)이 남아 있는 풍탁(風鐸) 등이 출토되어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사찰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외국 사절을 대접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예빈(禮賓)' 명 분청사기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백자편들이 수습되어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찰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동제 풍탁 (10세기)

석탑이나 건물 처마 끝에 달렸던 것으로 금빛이 잘 보존되어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예빈(禮賓)' 명 분청사기

조선시대 외국 사절을 대접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관청인 '예빈(禮賓)' 이름이 적힌 분청사기입니다.

정선 정암사에서 출토된 유물

정암사는 양산 통도사, 오대산 중대, 설악산 봉정암, 영월 법흥사와 함께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입니다. 645년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수마노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정암사에 대한 고려 시대 기록은 잘 남아있지 않지만 2013년 정밀발굴조사에서 '태평3년(太平三年)' 명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1023년 사찰 중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율정암강(教律淨嵒講)' 명 명문와를 통하여 정암사가 자장율사를 계승하여 계율종 사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태평3년(太平三年)' 명 명문기와 탁본
(1023년)

'교율정암강(教律淨嵒講)' 명 명문와
(고려 11세기)

귀면 무늬 기와
(고려시대)

영월 법흥사(흥녕선원지)에서 출토된 유물

흥녕선원은 강원도 영월군 사자산 남쪽 산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자장율사가 창건한 곳으로 진신사리를 봉안한 5대 보궁 중 하나이자 통일신라 말기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자산문을 일으킨 사찰입니다.

891년 소실된 후 943년 중창하였으나 계속되는 전란으로 사세가 기울어 오랜 기간 명맥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2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도자기, 기와, 금동반가사유상, 철제주자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면서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찰의 운영이 활발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동반가사유상은 8세기 중후반 통일신라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안 5년(大安 5年)'명 명문 기와를 통해 1089년 사찰 중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제주자
(고려시대)

'대안 5년(大安 5年)'명 기와 탁본
(1089년)

금동반가사유상
(삼국시대 7세기)

높이 15㎝, 폭 5㎝ 크기의 소형 반가사유상으로 영월 흥녕선원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출처가 명확한 반가사유상은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한쪽 다리를 무릎에 얹고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 모습의 불상으로 국보3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유사합니다. 조형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수작으로 삼국시대 영월지역 불교 문화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토유물로 되살린

강원지역 사찰의 역사

주　　관　월정사성보박물관
후　　원　강원도 · 평창군
전시 총괄　해운스님(김정귀)
전시 기획　홍순욱
전시 진행　김경옥 김원중 서은호 임진호 조유나 황경아

발 행 인　해운스님(김정귀)
발 행 일　2022년 10월
발 행 처　월정사성보박물관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Tel 033) 339.7000
https://wjssm.kr/

디자인 · 제작　고려출판사